

여중생 3명이 차량 훔쳐 도주극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 고3생

성매매 약점 이용해 금품 갈취

어른 못지않은 청소년 범죄 '경악'

무면허·뺑소니, 강·절도, 보이스피싱, 성매수, 공갈 등. 10대 범죄가 성인들 못지않다. 특히 중·고교가 방학에 들어가는 시기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청소년들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목포경찰에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힌 여중생 A(14)양 등 3명은 지난 8일 오후 도로변에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을 그대로 몰고 달아났다. 미숙한 운전은 의심한 신고 전화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났다. 영화에서처럼 추경전이 벌어졌다. 1시간 40분 가량을 목포 시내를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다. 순찰차도 들이받았다. 경찰에게 붙잡힌 3명 중 2명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다.

경찰들 사이에서 이정도는 가벼운 범죄라는 말이 나온다.

절도 등 차량이 이은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에 뺑소니는 기본. 보험사기·보이스피싱·성매수 공갈까지 성인 범죄 뺨칠 정도로 대담한 범죄 행각 도 잇따르고 있어서다. 돈만 되면 무엇이든 상관 없다는 식의 인식도 문제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1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광주에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를 저질러 붙잡힌 미성년자는 2018년 1623명, 2019년 1536명, 지난해 1531명 등으로 꾸준하다. 절도 범

5대 범죄 미성년자 검거

광주 매년 1500여명 달해

가벼운 처벌 악용 재범 일쑤

죄가 58.0%를 차지하지만 폭력 584명, 강간 55명, 강도 4명 등도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B씨 등 7명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휴대전화 어플로 '조건만남'을 하려는 성인 남성을 유인,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는 약점을 이용해 10여차례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광주·목포·성남 등 전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했던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피해 남성들에게 25만~500만원까지 빼앗았다. 이들 모두 돈을 벌기 위해 범행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청소년들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또다른 범죄는 보험사기였다.

지난해 11월 전남경찰에 보험사기 혐의로 붙잡힌 일당 30명 중 11명이 10대였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도로 길목을 정해놓고 기다리다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으면서 보험

금을 받아챙기는가 하면, 아예 두 대의 차량에 나뉘타고 공모해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들이 받아챙긴 보험금만 1억원이 넘었다. 청소년들은 한 번에 3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고액 아르바이트'에 쉽게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도 인터넷에 미성년자들에게 '꿀알바'로 인식되고 있다. 고교 3년생인 C군은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으로 고액을 벌 수 있다며 스스로 SNS를 뒤져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지원해 18일 만에 12명에게 1억7800여만원을 가로채 조직에 넘겼다. 고작 3%의 수수료를 벌겠다고 나이 든 노인들이 애지중지 모아둔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건네고 용돈을 받아 챙긴 것이다.

지난해 1월 광주경찰에 붙잡힌 중학생은 사흘 동안 모두 세 차례 금은방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혔지만 "다음날 학교에 가야 하니 빨리 풀어줘라", "미성년자를 이렇게 계속 붙잡아둬도 되는 거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또 청소년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재범으로 범행을 저지름수록 더 범죄는 대범해 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헬기 동원 화재 진화 12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생활용품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안전설비 안 갖춰 사망사고 일어났습니다"

폐목재 가공업체 업주 416일만에 잘못 인정 공개 사과

"안전설비를 갖춰지 않아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일하다 파쇄 설비에 끼여 숨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 해당 사업주가 사고 416일만에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다.

12일 전국고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업체의 이사이자 대표의 부인은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 육중 사과문을 발표했다. 해당 업체의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해당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피해자) 어머니 아버님께 마음으로 깊이 사죄를 드린다. 앞으로는 안전설비를 더 꼼꼼히 챙겨 이런 일이 다시

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아버지는 "사과문을 100% 만족하지 않지만 용서하지 않고 간다면 너무 힘들어 용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 대표가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감형받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고속노조 관계자는 "사업주가 공개적으로 유족에게 사죄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면서 "유족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0억대 투자 사기 부동산 개발업자 수사

100여명 광주서부경찰에 고소...피해 규모 더 늘어날 수도

부동산 개발업자가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광주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A사 대표가 투자하면 10%를 수익금으로 배분하겠다고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서부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피해자만 100명이 넘고

이들의 피해 금액도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사가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10~12% 가량의 채권 금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A사가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회사채를 발행해 선의의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고소에 참여한 사람 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피해 규모도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피해 규모,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해 해당 고소사건을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로 넘겨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거친 뒤 A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양향자 의원 특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

광주경찰, 사촌동생 입건

경찰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1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양 의원의 전 특보보좌관인 사촌동생인 A(53)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

다.

A씨는 이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로, 1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됐다.

경찰은 A씨와 지역사무소 회계책임자인 B씨가 지난해 4·15총선 이후 양 의원의 정치 자금 중 일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

사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토록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A씨가 지역사무소 회계책임자인 다른 직원 B씨와 정치자금법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금액에 대한 사용자, 액수, 관련 증빙서류, 회계 장부 등을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축사옥 임대문의 환영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밥전문점 등

자산 2,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자산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 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대출상담 환영
 집담대출(중도금, 잔금)
 관리형 토지신축 사업비 대출
 전세(임차)자금 대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 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 입구)